

# 전남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착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중 4차 이상 일본식 이름 2만4000여건 문서 대상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8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일 본인 명부에 없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4차 이상의 일본식 이름으로 된 도내 2만4000여 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남도는 75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조사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는 오는 9월까지 시·군에서 정비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정비목록을 1차로 작성하게 된다. 이어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조달청이 단계적으로 국유화 절차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므로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토지의 소유자, 상속인 등은 제적부 확인을 통해 사유재산임을 입증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사가 일제 잔재 청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본식 명의로 된 재산의 공적장부 정비와 국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개소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본부 전경.

스마트그리드 인력·시설 구축 688명 고용창출 기대

광주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가칭 KERI 스마트그리드본부)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은 2014년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남구 대촌동 도시첨단 산업단지내 광주분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국비 192억원을 포함한 총 742억원을 투입, 전력 변환과 디지털 에너지시스템 기술 관련 연구·실험·시험등을 건립한다. 1개 본부·3개 연구센터·1개 실(55명) 규모로 창원 본원에서 진행하던 스마트그리드 분야 연구 인력·시설을 이전한다. 올해 말까지 연구 장비·시설·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추가 인력을 채용한

다. 광주 분원에서는 취약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교육·기업 지원·장비 대여 등의 사업을 한다. 2029년까지 4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광주 분원의 운영으로 매출액 5127억원·기업 유치 142개·고용 창출 688명 등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분원은 서남권 전력·에너지 분야 연구시험 핵심거점 기관으로 광주를 에너지 신산업 혁신 성장의 메카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신시장 개척과 이윤 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원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5년간 50억 투입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지원



자가격리자 자택에 배달할 생필품과 방역물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광주 북구청 복지누리동 앞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자택에 일일배달 생필

품과 방역물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는 "지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로 휴업하는 기업 훈련을 지원하려고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품기업이 전국 3.6%(268개)에 불과한 사정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5년간 시비 50억원을 투입해 지역 자동차 부품 2·3차 협력 업체를 지원한다. 사업 추진 분야는 품질 인증·공정·원가 절감 등 품질 역량, 제품 인증·시험 평가·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등 기술 역량 분야로 나뉜다. 특히 휴업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휴업기업 유급휴원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9일부터 광주 그린카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드론'으로 '안전점검 사각지대' 없앤다

올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접근성 결여 5곳 드론 활용

전남도는 8일부터 3일간 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시설 중 접근성이 결여된 5개 시설을 선정,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해남 땅끝전망대를 비롯해 순천 팔마실내체육관, 순천 비봉 2길 급경사지, 나주 남도연립B동, 영산대교 등 5개소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층 구조물과 대형 교량, 옹벽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그동안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물의 외벽

과 각종 대형 구조물을 자세히 관찰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중대 결함을 일으킬 위험 요소는 관련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통해 보수·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위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욱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스마트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드론 활용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여 도민 중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소방본부, 심정지 환자 10명 중 1명 소생시켜

상반기 7만7188회 출동 3만8981명 구조·구급

전남소방본부 119 구급대는 4분에 1번씩 구급활동을 펴고, 심정지 환자 10명 중 1명을 소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조·구급 활동실적 분석결과 총 7만7188회를 출동해 3만8981명을 구조하고 구급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일일 평균 425회(구

조 72회, 구급 353회)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119구급대는 상반기 총 출동의 83%인 6만4151건의 신고를 접수해 3만716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 4분마다 1건의 구급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송된 심정지 환자 679명 중 67명이 소생해 심정지 환자 생존율 9.9%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 향상된 성과다. 환자 유형별 구급출동 건수로는 급·만성 질환자 등 질병이 2만2320건(60.1%)으

로 가장 많았고, 사고부상이 8059건(21.7%), 교통사고 5101건(13.7%) 등이 뒤를 이었다. 수난·교통 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펼치는 119구급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4건(3.2%)이 증가한 1만3037회를 출동해 181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사고 유형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709명(39%)을 비롯해 승강기 갇힘 사고 298명(16.4%), 잠금장치개방 197명(10.8%) 등 순으로 확인됐으며, 연령별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